

화재시 행동 요령

화재발생시 수많은 대형참사가 일어나게 된 원인은 화재시 적절한 초기행동 요령 및 피난유도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화재발생시 초기행동요령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발화초기의 안전조치

○ 최초 화재발생시

화재발생시 최초 발견자는 다른사람에게 화재발생 사실을 알려야 하고, 초기 소화작업에 임해야한다. 그러나 초기소화의 어려움이 있을시 지체 없이 소방관서에 신고를 하고 안전하게 대피한다.

○ 화재신고

소방관서에 화재신고를 할 때에는 침착하게 화재발생 장소, 주소, 주요 건축물 또는 목표물, 화재의 종류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하며, 상시 대비로 전화기 가까운 곳에 집주소나 주요 건축물 또는 목표물 등을 적어서 부착시켜 놓고 신고하면 효과적이다.

□ 화재시 대피요령

화재발생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유독가스와 연기로 인한 질식이다.

통계에 의하면 화재로 인한 사망중 60% 이상이 화염이 사람의 몸에 채 닿기도 전에 가스와 연기로 인한 질식사망이고 약 20% 정도만이 소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피난유도

- 상시 피난계획을 세워둔다
- 평소 소방훈련을 통하여 피난유도에 익숙해져야 한다.
- 피난 유도시에는 큰 소리로 외치는 것보다 가급적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차분하고 침착하게 행동하여야 한다.

○ 대피요령

- 화재발생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유독가스와 연기로 인한 질식이다.
- 연기속을 통과하여 대피할 때에는 수건 등을 물에 적셔서 입과 코를 막고 숨을 짧게 쉬며 낮은자세로 엎드려 신속하게 대피하여야 한다.
- 고층건물 화재시에는 안내원의 지시에 따르거나 통로의 유도등을 따라 낮은 자세로 침착하게 질서있게 대피하여야 한다.
- 엘리베이터는 화재발생 층에서 열리거나 정전으로 멈추어 안에 갇힐 염려가 있으며 엘리베이터 카내로 연기가 들어와 질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절대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 실내에 고립시 화기나 연기가 없는 창문을 통해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 등을 창밖으로 던져 갇혀있다는 사실을 외부로 알린다.
- 실내에 물이 있으면 불에 타기 쉬운 물건에 물을 뿌려 불길의 확산을 지연시킨다.
- 화상을 입기 쉬운 얼굴이나 팔 등을 물에 적신 수건 또는 두꺼운 천으로 감싸 화상을 예방한다.

※ 연기의 성질

연기가 이동하는 속도는 수평방향으로 1초에 약 1~2M 정도로 보통 사람이 걷는 속도와 같고, 수직방향으로 상승하는 속도는 1초에 약 3 ~ 5M 정도이다